


| | |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 | | |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 | 보도 | 2017.2.28.(화) 조간 | 배포 | 2017.2.27.(월) 10:00 | • 튼튼한 금융 |
| 책 임 자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영채 (02-2100-1730) | | | 심지원 사무관(02-2100-1724) 김지웅 사무관(02-2100-1725) 김명지 사무관(02-2100-1726) | |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 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

-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 i)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방향 합의
 - ii) FATF TREIN(부산소재 교육연구원)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 iii) 국경간 정보공유 MOU 체결(3개국) 등의 성과를 거둠
- ① FATF 기준에 북한 관련 최근 UN 안보리 결의내용을 반영하여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총회에서 합의
 - 아울러,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2015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함
- ② TREIN의 활동경과 보고, '17년도 업무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TREIN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함
 - 한편,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협력 증대, 운영위 정례화, 예산집행 투명화 등 실질적 지원·관리방안을 논의
- ③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국경간 자금세탁과 관련한 정보 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④ 스웨덴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FATF 기준 이행평가에 참여,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함

I. FATF* 총회 참석 개요

-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국 정회원

- 일시·장소 : 2017.2.18.(토) ~ 2.24.(금), 프랑스 파리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II.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북한 관련 금융제재 강화

- ① FATF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관련 FATF 기준을 최근 대북 UN 안보리 제재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결정
- ②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2015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한 FATF 기준 강화

< 주요 경과 >

-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하여
2016년 중 두 차례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 (UNSCR 2270 및 2321)
 - (주요 내용)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제한,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correspondent relationship) 종료 등
- 반면, **FATF 기준에는 上記 UN 안보리 최근 결의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대해 FATF 사무국은 작년 10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준 개정 필요성, 개정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이번 총회에 보고

< 이번 회의 결과 >

□ FATF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한 FATF 기준 개정안을 차기 총회('17.6월)까지 마련하기로 함

○ FATF 가이드스*도 새로운 제재유형을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함

* 회원국의 권고사항 법제화를 위해 FATF에서 발간하는 제도 이행 지침서로서 각 국의 이행 평가시 적극 고려됨

○ 이번 결의는 FATF 사무국의 검토안에 대한 한국,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거쳐 이루어짐

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 추진

□ 上記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2015년)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할 것을 지난 10월 총회에 이어 재차 강조

* FATF 제재대상국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행계획(Action Plan)에 명시된 각 '제도개선 필요사항'의 구체적 실적이 입증되어야 함

**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함

2. FATF 교육연구원(TREIN) 현황 보고 및 금년도 업무계획 승인

□ '16.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의 TREIN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 승인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 3회 개최 (미·중·러 등 30여개국, 60여명 참가)
→ FATF 사무국 및 회원국 요청을 반영한 '17년도 교육 연구계획 수립 등

** TREIN 고유의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회), 세계은행·러시아 등과 협력 워크숍(3회) 및 최신 이슈 포럼(2회) 개최 등 연간 600여명 대상 교육 등 실시

□ 다수 회원국들은 FATF의 유일한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의 단기간 내 정착을 지원해 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였고, FATF 의장*은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를 당부

* 후안 마누엘 베가세라노 (Juan Manuel Vega-Serrano, 스페인 FIU원장)

○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활성화 제안

○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핀테크 부문의 자금세탁 등 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

□ 한편, 총회 기간 중 제5차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2.20.)

* 금융정보분석원장(위원장), 부산시, 회원국 대표 3인(러시아, 중국, 호주)

○ 이번 운영위는 TREIN 원장 선임(케빈 스티븐슨, '16.10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였으며, FATF 사무국장도 참석하여 TREIN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증대, 중기 업무계획 마련,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운영위원회 정례화 등

3. 국가간 정보공유 MOU 체결

□ 금번 총회 기간 중 現 FATF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및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를 체결

* KoFIU는 현재까지 66개국과 MOU 체결(아시아 25개, 미주 14개, 유럽 23개 등)

○ 아울러,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 연내 MOU 체결을 제안

※ FATF는 자금세탁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 외국 FIU와의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4.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금번 총회에서 스웨덴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절차 등을 의결

- 스웨덴은 부동산 거래, 법인 설립 등 **비금융 분야**에서의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정책 시행 등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음 (KoFIU 직원 1명을 평가자로 파견)

* Risk-Based Approach: 각종 거래 등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 고위험 강화 조치, 저위험 간소 조치를 통해 자원 활용을 효율화

-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업종별 협회** 또는 **당국에 의한 감독체계** 구축
- 재무부, 법무부, FIU 등 **16개 부처**가 참여한 **위험평가 실시** ('13년)

* 자금세탁 빈도가 높은 범죄 및 금융거래 등을 분석 → 고위험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예: 조직범죄수익 환거래 감독 강화)

⇒ 한국은 FATF 상호평가(19.2월 실시) 대비를 위해 스웨덴의 제도 및 이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

-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성 중심의 후속 평가**를 지속 실시하는 등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기로 함

- 이행평가지 제도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상황을 **5년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

- 이행평가 및 점검 강화를 위해 회원국의 **평가자 파견 의무***를 강화
→ 한국은 **‘21년까지** 파견할 인원이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가

* 이행평가는 회원국 간 점검(Peer Review) 방식에 따라 실시되어 각 회원국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 또는 상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

참고: 1. FATF 개요 2.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참고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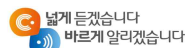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를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정보 포함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 회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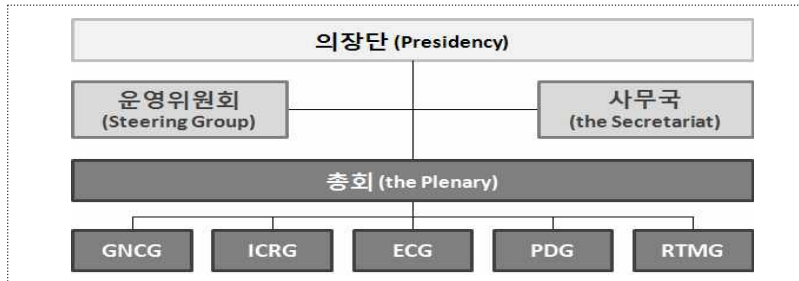
-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등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나라는 '09.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 지역 | OECD 국가 | 非OECD국가 | 국제기구 |
|------------|---|-------------------------|--------------------------------|
| 유럽 (20) |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러시아 | European Commission |
| 미주, 기타 (7)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 아태 (10)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
| 계 (37) | 26 | 9 | 2 |

□ 조직 구조



GNCG(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ECG(Evaluation and Compliance Group), PDG(Policy Development Group), RTMG(Risks, Trends and Methods Group)

□ FATF 의장

- 1년간 부의장직 수임(매년 7월~익년 6월) 후, 1년의 의장직 수행*
- * 신제윤 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행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주재

□ FATF 총회의 성격

- FATF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FATF 국제기준 및 정책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FATF 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정치적·기술적 기구라는 성격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

참고 2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 **[추진경과]** FATF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FATF 최초의 산하 교육·연구기구(FATF TREIN)를 유치 및 설립승인('16.6월)

- 개원('16.9월) 후, 원장 및 전문인력 2명이 채용되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워크숍 3회 개최 및 '17년도 업무계획 등을 수립

- **[주요기능]** FATF 회원국·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AML/CFT* 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플랫폼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 (AML/CFT:Anti-Money Laundering / Combating Financing of the Terrorism)

-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상호평가 평가자 등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민간 금융기관 등 전문가들 대상 확대 고려

- AML/CFT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국제기구 등과 지식공유

- **[운영계획]** '17년도에 WB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8회, 총회 및 심포지움 3회를 개최하여 총 600여명 교육 예정

- FATF 실무그룹(GNCG, RTMG)과 연계하여 FATF 및 FSRB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리서치 프로젝트 수행 예정

- **[인력구성]** 원장, 교육·연구인력, 행정인력(파견) 등으로 구성



- 국제공모를 통해 채용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인력(전문인력)은 현재 3명이며(원장 포함,'17.2월 기준), 3명 추가 채용중

- 중국 등 회원국으로부터 파견인력 추진 중